

## 스페인 소고 일부 (Chi Chang)

진리의 HK



저자소개.

Chi Chang. 1900년 4월 1일 중국 후안에서 태어났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2년간 재학한 후 미네소타 주립대학을 졸업하였다. 광업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1929년 대공황이후 급진화해 미네소타의 좌파 정치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37년 3월 27일 출항해 1937년 4월 14일 스페인에 도착하였다. 처음에는 15여단 수송대에 배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알바세테에 위치한 수송대 본부에서 복무하였다. 장교훈련대(OTS)에서 군사측량 교관으로 복무하였다. 스페인 내전 종전까지 생존하여 1938년 홍콩으로 건너가 중일전쟁에 참전했으며, 홍콩 체류중 스페인 소고를 작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 팔로군에 복무하였다. 1986년 아브라함 링컨대대에 복무했던 동지가 그의 행방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저자: 장기(张纪)- Chi Chang

## 스페인의 농민들

나는 발렌시아에서 알바세페로 가는 커다란 트럭을 몰았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6월의 태양이 내리쬐는 열기는 점차 강해져 갔다. 이 타는 듯한 날씨에 냉장고 없이 고기를 운송하려면 속도를 상당히 내야했다. 위태할 정도로 구불구불하게 뻗은 길에서 급커브를 돌자 올리브나무 너머로 당나귀가 끄는 수레와 검은 자켓을 입은 농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당나귀나 그 주인이나 경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나는 위태위태하게 트럭을 세울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 작은 수레를 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맹세하건데 나는 자칫하면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 했다. 그제서야 노인은 깊이 주름진 얼굴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멈춰세운 것이 국제여단원임을 알아보자 오른쪽 주먹을 하늘위로 치켜세우며 늘어지는 목소리로 “안녕하시오 동지들!”하고 외쳤다. 그 모습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내 오른주먹을 치켜세우는 일 뿐이었다.1)

1) 주먹을 하늘로 뻗는 행동은 내전기 공화파의 경례법이었다.

## 마드리드의 어린이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나는 마드리드의 꽤 조용한 구역에 멈춰서 연료펌프와 기화기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두 명의 사내아이가 내 양옆에 서서 보닛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열두살이나 열세살 정도로 보이는 동년배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어째서 자동차가 폭발음을 내며 갑작스럽게 멈춰섰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물었다. 나는 내 영어로 스페인어로 즐겁게 대답하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니?” “아뇨” 한 아이가 대답했다. 또 다른 아이는 “적어도 오늘은 이 도로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거예요.”하고 두렵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곤 “Tu Chino?(중국인 이에요?)”하고 물었다. 나는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러자 사내아이는 “¡Chicos en China bombardeados también! Fascistas, no bueno, por todo el mundo.(중국에서 아이들도 폭격당했대요!파시스트들은 나쁜대다가 세계도처에 있네요.)” 하고 말했다. 2)

2) 1937~1938년은 중일전쟁 중이었다

## 바텐더 와이노

15여단이 알바세페를 지나갈 때 나는 또 다른 중국인 대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보병부대에 속해있었다. (다른 중국인은 Yick Dong Hong으로 뉴욕 차이나타운 출신이었다. 1938년 후퇴 중 실종되었다.)

나는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총에 맞아 병원에 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건에 대해 그가 말하고 있을 때 어떤 뚱뚱한 남자가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이 행동 탓에 나는 금발 구레나룻 뒤에 숨겨진 얼굴이 Waino인지 알아보는데 한참이 소요되었다. 그는 내가 이용하는 북부 미네소타의 한 술집의 바텐더였다. Waino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하느님 맑소사! 정말 오랜만이야. 네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말이지. 여전히 많이 마시냐? 아니야? 다음에 우리랑 한잔하자? 트럭 운전하는데 문제 있어? 아무 반응없네. 그래. 혹시 내가 어떻게 바르셀로나까지 왔는지 아냐? 내가 땀던 보트가 이탈리아 잠수함에 당해서 침몰한건? 거기엔 육십명의 미국인과 수백명의 다른 나라 사람이 타고있었지. 운 좋게도 난 해난구조원에게 잡혀 건져졌어. 꼴 사납지! 모든 바다가 그 사람들로 덮힌거 같았어. 난 사시나무마냥 별별 떨었지뭐야. 다행히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어!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개들이”인터네셔널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뭘 모르지만 이게 나한테 좋다는 사실 하나는 알았어.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난 공산주의자가 될거야. 그렇고 말고!”

그러나 Waino는 파시스트의 흉탄에 맞고 숨졌다.

## 미해병대원 찰리.

내가 보병대에 배속되었을 무렵이었다. 나는 훈련기간 동안 지형도에 관한 교관으로 임명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같은 막사에 살던 찰리라는 인물을 알게되었다. 그는 21살이었고 미 해병대원이자 주방위군 이었다. 그는 파업과 니카파라 여행을 겪으면서 반파시스트가 되었다. 찰리는 우리 기지에서 가장 뛰어난 명사수 가운데 하나였고 사격 교관을 양성했다. 소등시간이 지난 어느날 밤 그는 취해서 웅얼거렸다. “뭘든 뭘대로 되라지. 난 장교양성소로 가기 싫어. 난 전선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병사, 병사들 처럼. 이해 하겠어? 소령새끼가 어찌되건 내 알바 아냐. 난 뿔거야.” 그는 수통에 든 베르무트 네뎃잔을 걸친 모양이었다. 하지만 소령은 찰리의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소령은 찰리에 대한 생각을 바꿔 그를 저격그룹에 배속시켰다. 그게 그 녀석이 전선으로 가게된 이유였다. 그는 내게 작별인사를 하며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돌아오면 같이 중국으로 가자. 쪽발이(Jap)를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주지.”

## 파리로 돌아가서

스페인에서 4개월간 투병후 파리로 돌아왔다. 다친 다리를 끌고 온 남자에게조차 파리의 여름은 아름다웠다. 신문에서는 때때로 인민전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기사와 현실은 다르다. 수면 아래에서 인민전선은 좀 더 활기찼다. 스페인에서 열차 한 대 분의 의용대원들이 도착할 때마다 기차역과 그 앞 대로에는 플래카드와 꽃을 든 천 여명의 프랑스 노조원들로 북적었다. 그들은 프랑스 정부가 불쌍하게 만든 그 외국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다. 그래. 적어도 파리에서 인민전선은 죽지 않았다.

내가 파리에 있었을 무렵 프랑코 진영에 억류된 14명의 미국인 포로들과 같은 숫자의 이탈리아군 조종사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이 막 성사되었다. 이 미국인들은 다음날 파리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 중에는 내 친구도 끼어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전송하기 위해 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1937년 초엽 자라마 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몇 달 간 이어진 이탈리아군의 처우는 그를 빼와 가죽만 남을 지경으로 마르게 만들었다.

그 때 갑자기 말쑥하게 차려입문 남자가 옆 객실에서 뛰쳐나와 팔로 내 목을 졸랐다. “안녕 Chi. 날 못알아보겠어? 아무것도 아냐. 난 단지 내 눈깔 하나를 잃었을 뿐이야. 그게 다야. 더 이상 포로 생활을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 바로 찰리였다. 그 어린 해병 말이다. 그는 전선에 있을 동안 저격대를 이끌고 암산(巖山) 중턱에서 적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저격대는 주력으로부터 낙오되어 고립되었고, 후퇴할 시간이라는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은 파시스트 저지라는 효과적인 임무를 속행했다. 파시스트들이 대전차포를 방열하는 동안 저격대는 40여명의 파시스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결국 파시스트들은 15명의 저격대를 끝장내기 위해 두 대의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이 동안 여단(정확상 15여단)은 후퇴했고 곧 그들은 포위되었다. 그리고 찰리만이 생존했다. 나는 이전에 그가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들곤했다. “젊은애들이 죽어갈 때 말이지.”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완전히 돌아버렸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는 없었어. 적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암반지대에 참호를 팔만한 곳도 없었지. 내가 총에 맞았을 때 난 더 이상 내 눈을 쓸 수 없었어. 누군가 스페인어로 내게 소리쳤지. 나는 손을 뻗어 수류탄 두 발을 집은 후 내게 소리치며 다가오는 놈들에게 던졌지. 그게 내 생명을 살리지 뭐야. 그들은 내가 항복해 포로가 된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있는거야. 내 총을 쓸 수 있는 눈은 여전히 멀쩡해. 말하자면 중국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거야. 그럼, 안녕 전우여!”

=====

몇년전에 번역한거라 출처는 기억이 안나지만 오랫동안 다른거 찾다가 발견해서 올림